



30갑년 이상 54~74세 ‘국가 폐암검진’

8월부터 흡연자 흡수년도 33만여명 대상 검진비 ‘11만→1만원’

금연상담·치료 등 연계... “장기흡연자, 금연 나아가도록 노력”

매일 1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만 54~74세 33만여명이 다음달부터 국가 폐암 검진을 받는다. 올해는 고위험군 중 흡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검진 비용 1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보유한 흡연자에게 2년 주기로 실시된다. 흡연력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2갑씩 15년 담배를 피웠다는 얘기다.

올해는 약 33만명에 달하는 흡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다. 흡연력은 폐암 검진 수검연도 직전 2년간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을 통해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31일까지 대상자에게 안내문(폐암 검진표)을 발송한다. 올해 대상자는 8월을 기준으로 내년 12월말까지 지정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29일 기준 종합병원급 이상 폐암검진기관은 230곳이다.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 비용 약 11만원 중 본인 부담분은 10%인 1만원 정도이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에서 8~12주간 최대 6회에 걸친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2017년 암종별 사망률을 보면 폐암은 인구 10만명당 35.1명이 목숨을 잃어 암 사망 원인 1위(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였다. 5년 상대생존율은 췌장암(11.0%)에 이어 27.6%로 두 번째로 낮았는데 조기발견율은 20.7%로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 등에 비해 낮다. 빨리 발견했다면 5년 생

존율은 64%까지 높아질 수 있다. 폐암 90%는 흡연자에게서 발생하는 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도가 11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조기 암 검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한국은 흡연율이 2017년 기준 1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3%)보다 높는데 특히 남성 흡연율이 31.6%로 OECD에서 가장 높다.

폐암 검진은 일부 해외 국가에서도 권고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공공·민간 의료보험으로,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 주관으로 폐암 사망률이 높은 10개 지역에 검진을 지원 중이다.

한국도 2013~2015년 전문가 회의와정을 거쳐 2015년 폐암검진 방식, 대상자 등 폐암검진 권고안'을 마련하고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에서 단계적 도입방안을 포함했다.

이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국가암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입하게 됐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WHO “한국 금연지원서비스 세계 최고수준”

제7차 세계 흡연실태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

국가모니터링·금연캠페인 등도 최고이행수준 평가



보건소 금연진료소를 시작으로 금연상담전화 등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 등이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제7차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가 발간됐다고 27일 밝혔다.

WHO는 2년마다 비용 효과적인 담배 수요 감소조치 7개 항목에 대해 이행 수준을 평가해 세계흡연실태보고서를 펴내는데 이번 보고서 주제는 국가금연지

원서비스(Offer help to quit)다.

7개 항목은 ▲모니터링(M, Monitor) ▲담배연기로부터 보호(P, Protect)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 Offer) ▲담배 위험성 경고(W, Warning) 1(건강경고 부착)·2(금연캠페인) ▲담배 광고·판촉 및 후원금지(E, Enforce ban) ▲담배세 인상(R, Raise) 등이다.

이 중 우리나라는 담배사용 정보수집(M), 금연지원서비스(O) 및 금연홍보(캠페인)(W) 등 3개 정책에서 WHO가 인정하는 최고이행수준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금연지원서비스를 대표적인 우수이행사례로 소개하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6년 보건소 금연진료소를 리닉을 시작으로 금연상담전화 등을 통한 무료금연상담과 니코틴보조제 및 약물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WHO는 한국 성인남성 흡연율이 1998년 66.3%에서 2017년 38.1%로 크게 하락하는 데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담뱃세 일부를 금연서비스 재원으로 배분하고 다른 담배규제 정책 및 사업들과 연계하는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한 점을 성공적인 금연지원서비스 핵심 요소로 꼽았다.

이번에 WHO가 인정한 한국의 금연지원서비스 관련 내용은 WHO 사무총장지 역 사무처 주재 주 집 (http://www.who.int/westpacific)과 페이스북 북 (http://m.facebook.com/whowpro), 트위터(http://twitter.com/WHOWPRO) 등에서도 소개된다.

이외에 담배사용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등을 통해 정기적이고 최신의 담배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우수하다고 인정했다. 금연캠페인도 WHO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세계흡연실태보고서로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실제 공공장소 전면 금연 등 지난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의 이행을 통해 WHO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이행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